

# ‘물오른 타격감’ KIA 박재현, 주전 리드오프 노린다



### KT와 주말 2차전서 데뷔 첫 4안타 대폭발 27경기 타율 0.313 활약...1번 눈도장 ‘왕’

KIA타이거즈 2년차 외야수 박재현이 팀의 새로운 리드오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오른 타격감을 앞세워 팀 승리를 이끌고 있는 것.

박재현은 지난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T위즈와의 주말 2차전 경기에서 우익수 겸 1번 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4안타(1홈런) 1도루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박재현의 활약에 힘입어 6-0 승리를 거둔 KIA는 이날 2연패 탈출과 동시에 리그 단독 5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날 박재현은 1회부터 안타를 터트렸다. 상대 투수 3구째 131km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전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도루까지 성공시켰고, 타자가 뜬공으로 처리되는 동안 3루까지 안착했다. 비록 후속타자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활약이었다.

두 번째 타석이었던 3회 역시 출루에 성공했다. 상대 직구를 공략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여기서도 곧바로 도루를 시도했으나, 상대 견제에 막혀 아웃됐다.

5회에는 세 번째 타석을 소화하며 결승 득점까지 연결했다. 2사 상황 타석에 오른 그는 상대 초구를 곧바로 때려내 좌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폭발시켰다. 이어 데일과 김선빈의 안타가 터지면서 박재현이 홈에

들어왔다. 이날의 결승 득점이다.

6회 타석에서는 박재현이 썩기를 박았다. 4-0으로 앞선 2사 1루 상황에서 상대 투수 초구 122km 체인지업을 그대로 걸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폭발시켰다. 올 시즌 2호 홈런이었다. 이로써 박재현은 데뷔 첫 4안타를 몰아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3일 경기 전 기준 27경기에 출전한 박재현은 83타수 26안타 2홈런 5도루 4볼넷 11타점 13득점 타율 0.313을 기록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최근 흐름도 기쁘다. 지난달 30일 경기를 제외하고는 최근 8경기에서 매번 안타를 생산하면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롯데전에서는 데뷔 처음으로 대형 타구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이날 1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상대 3구째 143km 직구를 그대로 걸어 올려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폭발시켰다. 2025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전체 25순위로 KIA 입단한 박재현의 개인 첫 홈런이다. 데뷔 첫 홈런이 리드오프 홈런인 경우는 구단 최초다. KBO 전체로 살펴보면 11호 기록이다.

현재 박재현은 꾸준히 1번 타수에 배치되며 공격의 시작을 책임지고 있다. 출루 이후 빠른 발을 활용해 추가 진루를 만들어내고,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득점 기회

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단순한 안타 생산을 넘어 팀 공격의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범호 감독도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박재현처럼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선수가 필요하다”며 “최근 안타가 나오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팀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발전 과정에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올 시즌은 박재현에게 중요한 기회의 무대다. 기존 리드오프였던 박찬호의 이탈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외야인 운용 변화까지 맞물리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박재현은 이들을 과고들며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비시즌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체중을 4~5kg 늘리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강화했고, 스프링캠프에서는 수비 안정감에 집중했다”며 “지난해에는 타석과 수비 모두에 대한 모습이 많았다면 올해는 공을 잡는 것부터 확실히 하려고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박재현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팀의 주전 리드오프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재현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국 태권도 꿈나무, 민주도시 광주서 열전

### 제28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대회 개막 10일까지 광주빛고을체육관서...지역 112명 메달 정조준

전국 태권도 꿈나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광주에서 열전을 펼친다.

‘제28회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중·고교 태권도대회’가 3일 개막. 오는 10일까지 8일간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광주시, 5·18대회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한다. 남고부 533명, 남중부 961명, 여고부 334명, 여중부 500명 등 총 23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각 계급별 정상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지역 선수단도 출격한다. 광주에서는 남고부 30명, 남중부 43명, 여고부 19명, 여중부 20명 등 총 112명이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경기는 핀급, 플라이급, 밴텀급 등으로 구분된 계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등부는 10체급, 중등부는 11체급으로 나뉘며, 모든 경기에 전자종 전자호구(KP&P)와 전자 머리보호대가 적용된다.

각 경기는 1분 30초씩 3라운드로 치러지며, 라운드 사이에는 30초의 휴식이 주어진다. 승부는 3전 다승제로 가려진다.

개인 체급별 1~3위에게는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며, 부문별 최우수선수(MVP)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트로피가 지급된다. 또한 부별 종합 우승팀 지도자에게도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트로피가 주어진다. 단체 부문에서는 부별 우승·준

우승·3위 팀과 함께 감투상, 정려상 등 다양한 시상도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 경쟁을 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 계승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이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 선수들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 대표로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플라이급 문상준(문성중 3년)을 비롯해 이지인(운성중 3년), 이규현(운성중 3년), 김보민(천곡중 3년) 등이 금메달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윤웅철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해 희생한 5월 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대회이자 후손들에게 이어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알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마음속 깊이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루기와 함께 품세의 저변을 확대하며 대세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내년 대회부터는 품세 종목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네일 5이닝 6실점’ KIA, KT전 루징시리즈

### 주말 3차전서 4-6 패...김도영 1회말 스리런포 활약 빛바래

KIA타이거즈가 KT와의 주말 3연전을 루징시리즈로 마감했다.

KIA는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T위즈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4-6으로 패배했다. 앞서 1일 3-4 패, 2일 6-0 승을 거뒀던 KIA는 이로써 KT전을 루징시리즈로 마쳤다. 그 결과 14승 1무 16패 승률 0.467을 기록, 승매치진은 -2로 떨어졌다.

이날 KIA는 박재현(좌익수)-데일(2루수)-김선빈(지명타자)-김도영(3루수)-나성범(우익수)-김호령(중견수)-오선우(1루수)-김태군(포수)-박민(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제임스 네일이 나섰다. 총 96개의 공을 던진 네일은 5이닝 7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4탈삼진 6실점으로 부진했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9km였다.

네일은 1회초 상대 선두타자를 좌전 안타로 내보냈다. 후속타자 최원준과 장성우는 범타로 처리했으나, 장성우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했다.

KIA는 1회말 곧바로 역전에 성공했다. 1사 상황 타석에 오른 데일이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김선빈 볼넷 이후에는 김도영이 대형 타구를 뽑아냈다. 그는 상대 초구 149km 투심을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3점 아치를 그렸다. 경기는 3-1로 뒤집혔다.

네일은 2회초 삼자범퇴 이닝을 만든 뒤 3회초 다시 위기를 맞았다. 상대 이강민과 김민혁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최원준의 희생번트도 만들어진 1사 2·3루에서는 김현수에게 2타점 동점 적시타를 내줬다.

4회초에는 상대 장준원과 한승택을 연속 뜬공으로 돌려세웠고, 이강민은 삼진으로



네일

처리하면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았다. 하지만 5회초 역전을 허용했다. 상대 선두타자를 범타로 처리한 뒤 최원준에게 볼넷을 내줬다. 김현수 라인드라이브 아웃 이후에는 장성우의 볼넷으로 2사 1·3루에 몰렸다. 이어 할리드에게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포를 맞으면서 경기

는 3-6으로 기울었다.

KIA는 6회초 네일 대신 한승택을 마운드로 올렸다. 한승택은 범타 2개와 삼진으로 세 타석 만에 이닝을 끝냈다.

7회말 1점 만화한 뒤에는 9회까지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4-6으로 패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시청 김태호·이재성, 전국종별육상대회 ‘금’

### 남자 100m·200m서 각각 1위 차지 아시아게임 선발전 앞두고 상승세

광주시청 육상팀 김태호와 이재성이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김태호는 최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 45를 기록, 서민준(서천군청)과 동일 기록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10초 46을 기록한 박민수(서울특별시청)가 이름을 올렸다.

김태호는 예선에서 10초 49, 준결승에서 10초 43으로 꾸준한 기록을 이어가며 결승에 진출했고, 마지막 레이스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금메달을 확보했다.

이재성 역시 단거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라인-루르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400m 계주 금메달을 획득했던 그는 이번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 8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재성은 예선에서 20초 97로 여유 있게 결승에 오른 뒤, 결승에서는 김동진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일반부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시청 육상팀 김태호(오른쪽 두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육상팀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일반부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시청 육상팀 이재성(오른쪽 두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육상팀

(구미시청·21초10)과 허정현(목포시청·21초17)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한편 남자 200m 간판으로 꼽히는 광주시청 고승환은 예선에서 20초 79를 기록했지만, 뚝은 날씨로 인한 부상 우려로 결승 출전을 포기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지난 겨울 제주와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2026시즌을 준비해왔다. 이후 3월 김해에서 열린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고, 이번 대회에서 성과로 이어졌다.

다음 일정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열리는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다. 이 대회는 9월 개최되는 2026 아시안게임-나고야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이번 대회 끝내고 곧바로 정선으로 간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